



산악인 오은선

14좌 등정을 마친 세계 유일의 여성 산악인

한국 여성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등정한데 이어 지난해 4월 만나푸르나 정상에 오르면서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 등정을 마친 세계 유일의 여성 산악인 오은선 대장(47세). 그녀의 덩달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계 여성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14좌 등정

오은선 대장의 시작은 이렇다. 1966년 지리산 자락인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어찌면 산과 지독한 인연은 고향에서부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1985년 수원대학교 전산학과 1학년 때부터 산과 인연을 맺었고, 1993년 봄 공무원을 그만두고 에베레스트 여성원정대에 합류했다.

2001년 K2(에베레스트 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8,613m) 등정 좌절이란 쓰라린 경험을 밀천 삼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나섰다. 그게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 등정보다 더 쉬워 보였고, 무엇보다 지구를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보너스가 탐났다.

2002년 유럽 최고봉 엘부르즈(5,742m) 등정을 시작으로 2004년 남극 최고봉인 빈슨매시프(4,897m)까지 오르면서 '한국 여성 최초' 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다. 이후 지난 2007년 K2 등정을 재도전하면서 비로써 14좌 등정이라는 목표를 가슴에 품었다. K2 등반을 계기로 2008~2009년 2년 연속 4좌를 등정하게 되고 결국 2010년 세계 어떤 여성도 달성하지 못한 14좌 등정을 이뤄냈다.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 그 이름은 산이다

불혹을 넘긴 나이, 154cm의 왜소한 체격으로 히말라야 14좌를 모두 오를 수 있었던 그녀의 건강 비밀은 무엇일까? 오은선 대장은 채소 위주로 구성된 식단으로 건강관리에 힘쓴다. 양껏 먹기보다는 소식을 하고 육류 위주의 식단보다는 한식을 주로 먹는다고. 대신 등반 후에는 한우 곰탕으로 고갈된 원기를 회복한다.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한 걸음씩 후회 없이 전진한다면 그 어떤 목표도 달성 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몸으로 입증한 그녀는 “노력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오은선 대장은 처음부터 14좌 등정이란 큰 목표를 정한 건 아니라고 했다. 단지 산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는 것이다. “산악 동호회를 통해 등산을 시작했어요. 경치가 좋고 산에 오르는 게 즐거워 시작한 일 이죠. 그러다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빨려 들어 왔어요.” 그녀는 산이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이라고 했다.

산 정상의 통쾌함은 찰나,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도 꼭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요.” 처음으로 8,000m 이상을 등정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높은 봉우리도 좀 더 수월하게 등정할 수 있게 됐다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정상에 오르는 것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살아서 내려오는 것이었죠. 산을 무사히 내려와야 진정한 목표달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정상에 섰을 때의 통쾌함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다. 산 밑까지 살아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상등극 순간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편하게 자고 일어났을 때 등반에 대한 성취감이 물려오는 걸 느낀다고 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도전한 삶의 숙연한 진실이다. **MEDI^YCHECK**

